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EBS 인문학 특강, and various news and educational show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알짜 국어 문법', '2013 논술', and '올림포스'.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부동산', and '수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7일(음 9월 25일 壬辰)

Table of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배우 김자옥 별세



‘영원한 꽃누나’ 하늘의 꽃이 되다

폐암 합병증으로...향년 63세

젊은 시절에는 청순미로, 중년에는 ‘만년 소녀’ 이미지로 사랑받은 배우 김자옥 씨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별세했다. 향년 63세.

김씨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지난 14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강남성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망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면서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지난 5월 올림포스공원에서 공연한 악곡 ‘봄날은 간다’에 출연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끝내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 종합 검진을 받던 중 대장암 판정을 받고 바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경과가 좋아 그는 바로 다음달부터 SBS 드라마 ‘워킹맘’에 출연하는 등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활동했다.

김씨는 ‘워킹맘’ 제작발표회에서 “회복이 빠르다. 몸에서 나쁜 것이 빠져서 그런지 지금 상태가 좋다”며 “처음에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가 너무 게을렀다는 생각을 했다. 일만 하고 건강을 안 챙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그들이 사는 세상’ ‘지붕뚫고 하이킴’ ‘엄마도 예쁘다’ ‘오작교 형제들’ ‘맛있는 인생’에 이어 올 3월 막을 내린 SBS TV ‘세 번 결혼하는 여자’까지 줄기차게 연기를 해오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사이 tvN 예능 ‘꽃보다 누나’를 통해 크로아티아 여행도 다녀왔고, 영화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에도 출연했다. 마지막 작품은 지난 5월 공연한 악곡 ‘봄날은 간다’.

하지만 얼마 전 이 폐암 전이되고 합병증까지 발생하면서 최근 병원에서 투병해왔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한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연락을 받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인 고(故) 김성하의 딸로, 어린 시절 CBS기독교방송의 어린이 성우로 활동하면서 일찍부터 재능을 뽐내온 김자옥은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로 연기생활을 본격 시작한다.

작고 아담한 체구의 미인인 그는 비련미, 청순미로 데뷔와 동시에 드라마와 영화계에서 맹활약하며 인기를 얻었다. ‘보통여자’ ‘O양의 아파트’ ‘영아의 고백’ ‘목마 위의 여자’ 등 영화와 ‘모래 위의 욕망’ ‘유혹’ ‘배반의 장미’ ‘보통여자’ 등의 드라마를 통해 1970~80년대를 풍미했고, 이후에는 따뜻하고 푸근한 ‘어머니’ 상을 보여 주며 작품 활동을 이어 갔다.

예쁘고 귀여운 이미지로 ‘공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그는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40대 중반인 1996년 ‘공주는 외로워’라는 음반을 내고 가수 활동도 했다.

이때 코믹하고 귀여운 ‘공주’ 이미지로 변신에 성공하면서 그는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는 1980년 가수 최백호와 결혼했으나 성격차이를 이유로 3년 만에 이혼했다. 1년 후 가수 오승근과 재혼해 지금까지 연에게 대표적인 잉꼬부부로 살아왔다.

김영실 SBS드라마본부장은 “김자옥 씨는 1970년대는 청춘의 아이콘으로 최고의 스타였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역할로 사랑받았으며 한국드라마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오승근과 1남1녀가 있으며,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막내 동생이다.

빈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 오전 8시30분 치러진다. 장지는 분당 메도리얼 파크.

결그룹 프리츠, 나치 연상 의상 논란 ‘국제적 망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지난 13일 보도

신인 결그룹 프리츠가 나치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어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사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한국 신인 결 그룹 프리츠가 나치의 상징물을 연상시키는 붉은 완장을 차고 무대에 올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리츠의 의상 논란은 이들이 이달 초 부산경마공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독일 나치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연상시키는 완장을 차고 공연하면서다. 멤버들이 왼쪽 팔에 찬 붉은 완장에는 흰색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는 X 표시가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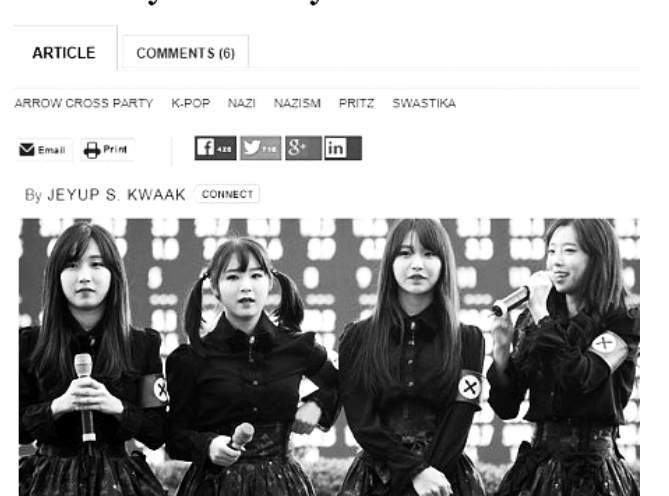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연 사진이 올라오며 국내 누리꾼 사이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를 보도해 논란이 한층 확산했다.

이에 대해 프리츠의 소속사 팬더그램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로고는 속도 제한 교통 표지판에서 착안해 만들어졌으며, 십자가 직선 4개의 끝 부분은 화살촉 모양으로 네 방향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포부를 상징한다”고 해명했지만 북장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소속사는 해당 의상을 수정하고 곧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가요 관계자들은 불분한 시선을 보내며 노이즈 마케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누가 봐도 나치즘을 연상시키는 데 이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최근 신곡을 발표한 이

K-Pop Band Draws Criticism for Logo's Similarity to Nazi Symbol



그룹이 주목을 받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음반기획사 대표도 “요즘 아이돌 그룹들의 크고 작은 문제로 K팝 육성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란은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데뷔한 프리츠는 지난 13일 발표한 신곡 ‘술아술아’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